

전통의 명문 東山 창의성으로 2% 채우기

모 청량음료 광고에서 사람들에게 부족한 2% 채우기를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성공하였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면서 부족한 2%의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 것이 성공 요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타 제품은 영양소가 2% 부족할까요? 만약 타 회사의 동종 제품의 수익이 이 청량음료의 수익보다 떨어진다면 품질보다 마케팅 전략에서 2% 부족한 것은 아닐까? 2%는 바로 '창의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건수 교장 선생님

매월 발행되는 「새동산」이 일상적인 학교소식 알림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학기별 제작되는 「동산문화」는 다양한 화보와 함께 교육활동 보고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4호를 맞아 야심찬 기획으로 학기 초부터 학생 기자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신문에서 매거진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물론 평소 2층 게시판의 <뉴스레터>를 통해 발표되었던 학생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기사가 주축을 이룬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점이 바로 기존 「동산문화」의 부족했던 2%를 채우는 창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 등의 어휘는 벌써 진부해진 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무대, 변화무쌍한 생활환경 속에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키거나, 지금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2%의 창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2%를 채우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은 지명한 이치입니다.

그럼 동산인들은 2%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겠지만, '독서'가 으뜸이요 지름길입니다.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폭넓고 깊게 갖추며 동시에 사고력을 확장시킨 연후에 아이디어가 생겨날 것입니다. 논술대비를 위해 '쓰기'연습을 아무리 한들, 배경지식이 없으면 관련어휘를 끄집어낼 수 없으니,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입시는 물론 대학에서 논문쓰기, 취직시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 어디에서나 독서의 힘이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로와 관련된 체험의 중요성을 들고 싶습니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는 옛말을 듣지 않더라도 체험은 진로탐색의 척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봉사활동과 연계된 체험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을 꿈꾸는 학생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봉사체험을 상당기간 하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고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고, 장차 직업에 대한 적응력도 높일 것입니다. 21번이나 세계여행을 하며 지구를 32바퀴나 돈 한국 최초의 세계여행가이며 우리 동산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故 김찬삼교수는 세계여행 관련 책을 20권 이상 썼습니다. 김찬삼교수가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해 두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체험활동을 할 때에도 반드시 그 동기와 과정은 물론 활동 후 사고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예전에 소홀히 했던 2%를 채우기 바랍니다.

「동산문화 24호」 간행을 축하하며, 학생기자들의 열정을 치하합니다. 또 모든 동산인들이 「동산문화」와 함께 더욱 새롭게 발전하길 기원합니다.